



이종호 1골 1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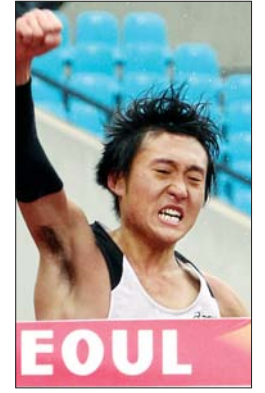
“내가 광양 루니”

20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전남 드래곤즈와 서울 FC의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된 전남 이종호(오른쪽)가 두번째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혁 서울국제마라톤 2위

2시간 09분 28초 깜짝 질주
 모로코 굼리 우승

한국 남자 마라톤의 기대주 정진혁(21·건국대·사진)이 2011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깜짝' 2위를 차지했다. 20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출발해 정계천~신설동~군자교~자양동~석촌호수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에 들어오는 42.195km 풀코스에서 벌어진 남자부 레이스에서 2시간09분28초로 압도적인 굼리(35·모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중앙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10분59초를 찍고 8위를 차지했던 정진혁은 마라톤 풀코스 세 번째 도전 만에 메이저대회에서 개인 최고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내며 단숨에 한국 마라톤의 간판 주자로 떠올랐다. 서울국제마라톤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인정한 최상급 '골드라벨' 레이스다. 정진혁은 준우승 상금 4만달러와 함께 2



시간9분대 타임 보너스로 5000달러를 덤으로 받았다. 정진혁은 “8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잘 달리고 내년 런던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 남자 선수 중에서는 박주영(31·한국전력공사)이 2시간16분02초로 7위, 오서진(23·국민체육진흥공단)이 2시간16분06초로 8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로베 구타(25·에티오피아)와 웨이 야난(30·중국)이 각각 2시간26분51초와 2시간27분13초로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정윤희(28·대구은행)가 2시간32분26초로 3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국내 남자 1위 지영준(30·코오롱)은 참가·모집 증세로 대회 직전 레이스를 포기해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지동원 대신 후반 투입 맹활약... 전남, 서울FC 3대0 꺾어

또 석연창은 심판 판정... 광주 FC, 울산에 1대2 역전패

전남은 웃고 광주는 울었다. '광양 루니' 이종호의 데뷔골을 앞세운 전남 드래곤즈가 서울 FC를 3-0으로 제압했다. 울산 원정에 나선 광주 FC는 울산 현대에게 1-2로 역전패를 기록하며 승점 사냥에 실패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20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 3라운드 홈경기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3골을 몰아넣으며 3-0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전남은 2004년부터 이어왔던 서울과의 홈 경기 9경기 연속 무승(5무4패)의 부진에서도 벗어났다. 전남 35분 레이나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다. 전반 34분 공영선의 돌파를 막던 서울 골키퍼 김용대의 파울이 나오면서 전남의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레이나는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1-0을 만들었다. 후반 전남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후반 9분 김명중을 인디오로 교체한 정혜성 전남 감독은 후반 20분 부상 복귀전에 나선 지동원 대신 이종호를 투입하며 공세를 나눴다. 후반 31분 이종호가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상대 수비수를 뚫고 오른쪽 슈팅으로 서울의 골망을 가르면서 K리그 데뷔골을 터트렸다. 이종호의 골로 승부에 쐬기를 박은 전남은 후반 인저리 타임에 터진 김영욱의 골을 묶어 3점차 승리를 마무리했다. 광주 FC는 이날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 광태휘에게 두 골을 내주며 1-2로 역전패를 당했다. 선제골은 광주의 묶이었다. 울산의 공세가 전개되던 전남 35분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광주의 선제골이 터졌다. 공격수 김동섭이 주장 박기동이 골 포스트 왼쪽에서 짧게 패스한 공을 받아 그대로 울산 골문으로 넣으며 1-0을 만들었다. 김동섭의 시즌 3호 골이자 박기동의 시즌 첫 도움. 대구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페널티킥으로

K리그 데뷔골을 기록했던 김동섭은 2라운드 수원원정에서 경기 시작 25초 만에 골을 장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골 맛을 보며 3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중원에서는 올 시즌 첫 출격에 나서 부주장 김은선의 활약이 돋보였다. 경기전 머리카락이 짧게 자르고 필승 결의를 다진 김은선은 중앙 미드필더로 그라운드에 올라 노련한 울산 선수들을 완벽하게 제압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심판판정이 승부를 갈랐다. 후반 22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선수들이 경합을 벌이는 도중 석연창이 심판 판정으로 수비수 박병주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페널티킥 상황이 됐다. 울산 광태휘가 키커로 나서 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 41분에는 광태휘가 헤딩골까지 추가, 광주는 1-2로 역전패했다. /울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안 더비' 불발... 맨유, 볼턴 1대0 제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후반 종료 직전에 터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결승골로 볼턴 원더러스를 간신히 꺾었다. 한국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렸던 박지성(맨유)과 이청용(볼턴)의 '코리안 더비'는 이청용만 후반 교체 출전하는 바람에 불발됐다. 이청용은 후반 15분 대니얼 스타리지를 대신해 경기 끝날 때까지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했다. 반면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지성은 후반 한때 몸을 푸는 모습을 보였으나 끝내 그라운드에 오르지 못해 이들의 두 번째 맞대결은 무산됐다. 맨유는 2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10-2011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43분에 터진 베르바토프의 결승골에 힘입어 볼턴을 1-0으로 물리쳤다. 맨유(18승9무3패)는 이날 웨스트브로미치와 2-2로 비긴 2위 아스널(17승7무5패)을 승점 5점차로 밀어내며 정규리그 선두를 굳게 지켰다. /연합뉴스

반면 최근 10년간 맨유의 홈 구장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던 볼턴은 이날 경기에서도 패해 '올드 트래퍼드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양팀은 FA컵 4강에 모두 진출한 팀답게 경기 내내 팽팽히 맞섰다. /연합뉴스

조광래호-홍명보호 축구협 자선경기 추진

대한축구협회가 29일 예정됐던 축구대표팀의 몬테네그로와의 평가전이 취소됨에 따라 대신 A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U-23) 간 자선 경기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오는 29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과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올림픽팀이 맞붙는 연습경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21일 프로연맹과 K리그 구단, 조광래, 홍명보 감독의 의견을 종합해 자선경기 개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가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초슬림!!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가발 가격 파괴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SCREEN GOLF

두암골프존

연중무휴 가격인하!

18홀 13,000원

(오전12시 티업까지 10,000원)

- ▶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 ▶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 ▶ 골프존 Real 18홀 17,000원 (추가부담 없음)

만나는 순간,
 여러분께 리더의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 ▶ 편안하고쾌적한 최고시설 5개홀
- ▶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홀
-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 ▶ 골프제, 신발, 장 무료대여
- ▶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 ▶ 윈손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두암골프존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원도로쪽 70m [햇살 5층]

예약 ☎ 234-9999